홀로스 연구소
의식 확장과 힐링, 그리고 신에너지의 연구 및 발전을 통한 물질과 의식의 통합

발행:월인 • 편집: 허유, 우현, 쎄이, 선호, 도빈, 연우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쑥고개로68 (청룡동) 혜남빌딩 4층
Tel:02-747-2261 • Fax:02-747-3642 • E-mail: cpo@herenow.co.kr

오인회 소식

2015. 7월(제46호)

권두언 卷頭言

"나는 사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 스스로는 생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사과를 생각하기로 하면 사과 생각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라구요.

첫 번째, 사과를 생각하기로 한 최초의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과를 생각하기로 한 최초의 결정은 내가 일으킨게 아니고 어느순간 탁 하고 떠올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사과를 생각하기로 한 이후로 사과와 관련된 수많은 스토리 중에
왜 하필 사과에 대한 '이 특정한 하나의 스토리'를 선택하게 되었는가 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 많은 스토리 중에서 하나의 스토리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뇌과학과 신경과학에서는 1984년 리벳 박사의 유명한 '리벳실험' 이후로
30여년 동안의 연구를 통하여 "생각은 하는 것이 아니라 떠오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로 결론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언가에 대한 최초의 생각과 그 생각에 대하여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생각의 내용들이
모두 떠오르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을 일으키는 주체일때는 생각의 모든 내용이 '내 것'이고 '내 책임'이지만,
생각이 일어나는 것일 때는 수많은 생각의 내용들이
나를 스쳐가는 바람과 같게 됩니다.

이때 생각은 필요하면 사용하고 필요없으면 내려놓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물론 이 '필요'도 떠오르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宇絢-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6.1 이혜영 3만3천원 / 6. 9 류창형 3만원 / 6.13 쎄이 10만원 / 6.16 아름드리 10만원 / 6.22 여행 1만원 / 6.29 박광인 3만원

청년 백일학교 후원방식

2년 운영후원 : 300만원(일시불)
2년 일시후원 : 120만원(일시불)
2년 24회 후원 : 120만원(1달 5만원)
1년 일시후원 : 60만원(일시불)
1년 12회 후원 : 60만원(1달 5만원)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2-135-404042 이원규
문의 : 02-747-2261

청년백일학교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후원액 5515만원)

초현 1300만원, 천강 1300만원, 구당 1000만원
지원 300만원, 우현 300만원, 고을 300만원,
기보 300만원
화동 120만원, 허유 120만원 무연 120만원
문수홍 60만원,광주나무 60만원,아름드리 60만원
바람 60만원 (11.17, 12.17,1.16,3.19,4.29)
쎄이 30만원
디테 45만원 (11.20, 12.22, 1.20, 2.23, 3.20, 4.20, 5.20, 6.22,7.22)
솔내음 30만원 (2.25,3.25,4.27,5.26,6.25,7.27)
도빈 10만원

오인회 화요모임에서 허유님의 전등록 강의와 체험나눔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미내사 서울 북까페에서 허유님의 전등록강의와 한주동안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였던 다양한 체험나눔 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새로운 전등록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되며, 원격 스카이프 통화를 통해 서울과 함양이 실시간으로 접속하여 강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인회 회원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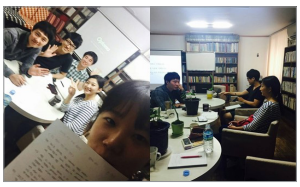
천강님의 주도하에 오인회 수요 화상모임이 진행중입니다

오인회 수요모임은 화요모임에 참석을 못하시는 사정이 있으신 지방분들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부터 화상 사이트를 이용하여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깨어있기 관련 체험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천강님의 주도하에 모임이 진행되고 있으며, 마음의 구조를 살피기 위해 필수적인 '감지'파악과 그것을 통해 '주체/대상'의 동시발생을 알아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모임 참석을 원하시는 지방에 계신 분들은 미내사 서울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02-747-2261)

2차 청년백일학교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스스로 깨어있는 삶에 대한 자극을 통해서 일상에서 관성에 휘둘리지 않는 힘을 청년들에게 얻게 해주는제 2차 청년 백일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뜻있는 분들의 후원 아래 현재 라마와 선혜 두 젊은이가 2차 청년 백일학교 과정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미내사 홈페이지 백일학교 커뮤니티 에서 그 진행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응원 바랍니다.

청년대상 파일럿 모임 '너머스쿨' 모임이 매주 진행중에 있습니다



청년백일학교 활동의 일환으로 한계를 넘어간다는 의미의 너머스쿨이 5월 30일부터 진행중입니다. 성지님이 주도하는 청년대상 워크숍 파일럿 모임으로, 그동안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스트레스, 감정반응 다루기' , '행동과학' , '실패하지 않는 계획세우기' 와 같은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모임은 매주 토요일 6시간씩 진행되고 있으며 한 가지의 주제로 강의와 실습, 그리고 한 주간 실천할 계획을 세우고 진행한 경험요약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청년 백일학교와 새로운 워크숍 프로그램, 추가로 청년백일학교 원격 시스템을 준비하는 데 토대가 될 것입니다. '너머스쿨- 삶의 진실 청년 백일학교' 네이버 카페 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우현님의 나와의 소통 강좌가 진행되었습니다

7월 23일 부터 삼성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우현님의 나와의 소통 강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강좌는 session1과 sessin2로 나누어 진행되며, sessin1에서는 "뇌과학과 정신과학이 밝혀주는 나의 자유와 행복"이라는 주제로 생각은 하는 것이 아니라 떠오르는 것임을 밝혀보고 이를 통해 나의 자유와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session2에서는 스트레스를 이용하여 직장과 삶에서 만나는 문제 해결하기 라는 주제로 스트레스가 내 것이 아니게 되면 스트레스에 연결되어 있는 원함을 볼 수 있게 되어 무의식이 원함을 현실화 하기 위해 나서게 되고 그 결과 몰입을 경험하게 되고 행복을 경험함으로써 직장과 삶에서 만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전체과정과 세부기법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인회 여러분들의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험하는 나' 마저도 현상이다
허일 인터뷰(1)

허일님은 청소년 상담일을 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어릴적부터 인간의식의 변화와 잠재능력 개발에 관심을 키우던 중 가족세우기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미내사를 알게되었습니다. 깨어있기를 통해 근본에 대해 맛을 보고 현재 강원도 시골에서 두아이와 아내와 살면서 깨달음을 몸으로 살아내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깨어있기를 통해 무엇이 달라졌는지 들어보았습니다.

편: 반갑습니다. 허일님

허: 네 저도 반갑습니다.

편: 미내사클럽을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허: 제가 가족세우기라는 프로그램에서 트레이닝 과정을 밟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같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끼리 과거에 받았던 교육들과 현재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언뜻 미내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죠. 그랬더니 흥미로운 강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편: 흥미로운 강좌라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허: 예를들면, 키네지올로지 라고 일컬어지는 생체정보반사학 워크샵 같은 경우, 몸의 특정한 근육을 가지고 어떤 진실이나 거짓을 판단한다거나, 가족세우기도 그런 범주에 들어가고, 깨어있기와 자기변형게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잘 몰랐을 때라서 그런지 하나하나 다 흥미롭고 호기심이 끌렸습니다.

편: 원래 이런 분야에 관심 있었나요?

허: 제가 심리학과를 졸업했는데요. 심리학과에 재학하던 당시에 재직하셨던 학과 교수님 중 한 분이 켄윌버의 무경계라는 책의 번역자이신 김철수 교수님이셨습니다. 초월심리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분의 수업을 들으면 그분이 하는 말들이 재밌고 흥미로웠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의식과 관련된 공부에 관심을 두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정식으로 명상을 배운 건 아니지만 오쇼의 책들을 보면서 호기심을 채워갔었지요. 참 신기해서 직접 따라 해보기도 했습니다.

편: 심리학 전공을 하면서 켄윌버를 알게 되고 명상 관련 서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과 친구들 중에서 다른 친구들은 그런 곳에 관심을 가진 친구들 있었나요?

허: 과에 한 명도 없었어요.

편: 본인이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계기라도 있었나요?

허: 김철수 교수님께서 자주 썼던 개념 중의 하나가 스몰아이라는 개념이었거든요. 우리안에는 많은 스몰아이들이 있다. 시시때때로 그중 한 놈이 나와서 주인행세를 한다. 지금 돌이켜 보면 깊이 있는 말들을 언뜻 던져주셨는데 그때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지만 그런 일상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이 저에게는 많은 통찰을 주었고 다르다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편: 다르다는 느낌이 무엇이죠?

허: 일반적으로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있는 교훈이나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설교 같은 것과는 무언가 많이 달랐어요. 그런 느낌이 오쇼의 명상 책을 읽을 때도 들었었는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쪽에 흥미가 많았어요. SF라든지 초현실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 어렸을 때 꿈이 고고학자 였어요. 고고학이 굉장히 지루한 학문일 수 있는데 묻혀있는 신비로운 것을 발굴해내는 쪽에 관심이 많았죠. 어쩌면 그런 호기심이 계속 이런 공부를 하도록 끌어왔던 단초가 되기도 해요.

편: 깨어있기 강좌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허: 가족 세우기 워크숍을 하면서 깨어있기를 알게 되고, 책을 보게 되었고 깨어있기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어있기를 이수한 이후에는 자기변형 게임 같은 강좌도 참여하게 되었고요.

편: 그러면 깨어있기를 참여하게 된 어떤 직접적인 계기가 있었나요?

허: 가족세우기를 하면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상담을 직업으로 하다보니까 어떻게 하면 상담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족세우기를 시작한 건데, 명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많더라고요. 오쇼의 동적 명상을 많이 연습시키고 그런 명상, 깨달음, 화두나 관련된 단어들을 사용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평소에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런 분야의 책을 많이 읽게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깨어있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편: 그러면 깨어있기 강좌에서 어떤걸 배웠나요?

허: 저는 깨어있기 강좌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책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이것저것 해보려 했습니다. 감지가 뭔지 알아보려고 이렇게 뚫어져라 현상으로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생각이 없어지는 상태가 오더라고요.

편: 책만 보고서 연습하셨단 말이죠??

허: 네, 책에 쓰여 있는 대로 해보려 했는데 한계가 크더라고요 이게 감지인지 감각인지 와 닿지가 않아서요. 가끔 어렴풋이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뭔가 평소의 의식과 다른 경험들이 오기도 했거든요

편: 그런데 책만 보고 어떻게 연습하시게 된 거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힘들 거 같은 데요.

허: 일단 그 당시 봤던 깨달음과 관련된 책들은 되게 좋긴 하지만 추상적이고 어떻게 하면 그런 상태로 접근해나갈 수 있는지 방법론이 친절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깨어있기 책에서 느꼈던 건 뭔가 구체적인 연습방법이 챕터마다 있어서 반가웠어요.

편: 어떻게 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죠? 그리고 깨달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허: 깨달음이란 어떤 상태라고 생각했어요. 깨달았다고 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신성무의 구르지예프라든지 오쇼라든지 네 가지 질문의 바이런 케이티라든지 그런류의 내용들을 보고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다보니 어떤 일관성이 보이더라고요. 분명히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는 되게 다른 것이죠

편: 구르지예프나 오쇼라든지, 바이런케이티에 대한 글에서 어떤 일관적인 내용을 느꼈나요?

허: 예를 들면, 굉장히 극단적인 고통 가운데 순간적으로 깨어남을 경험하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분별없음, 어떤 고통이나 감정으로부터 떠나있고, 모든 것을 신비롭게 볼 수 있는 관점들이 표현되어있었습니다. 이런 게 사람들마다 조금씩 개성이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겠구나 하는 신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편: 본인도 그런 경험을 하고 싶었나요?

허: 네 그런 욕구가 컸죠

편: 본인에게 그런 고통이 있었나요??

허: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았어요. 상담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접하게 되고 치료, 상담 워크숍을 통해 감정을 다루고 고통들을 다루는 방법들을 접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방법들을 찾게 되고 접근하게 되더라고요.

편: 본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상담을 위해 필요한, 내담자에게 고통이나 감정을 치유케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곳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건가요??

허: 예, 처음에는 그런 동기로 출발했습니다.

편: 그럼 본인은 사실 문제는 없었지만, 직업적인 필요에 의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건가요?

허: 고통이 동력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상담기법이나 가족세우기나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면 한계에 부딪히는 점들이 있어요. 지금 돌아보면 계속 스토리 안에서 돌고 있는 거죠. 부정적인 스토리를 긍정적인 스토리로 바꾸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죠. 뭔가 좋아지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그 사람의 행복이라든지 성장이라든지까지 닿아있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편: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허: 네. 왜냐면 항상 일시적이었던 것이죠. 행복은 누가 행복하다고 어떻게 규정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때는 행복해 보이더라도 또 어떤 순간에 다시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슬픔에 빠지는 상태로 돌아 갈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예전에 가졌던 내용들이 또 올라와서 '나는 못난 사람이야, 연약한 사람이야' 라는 스토리로 자신을 규정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할 수 있는데, 그 수준에서 계속 작업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상담이나 그런 치료기법들을 쇼핑하듯이 돌아다니는 거죠. 사실 저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뭔가 좋아질 듯 하긴 한데 돌아가면 그게 일상의 큰 변화라든지 어떤 상태의 도약이나 이런 것들을 담보하지는 않았어요.

편: 허일님께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내담자들이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 같았지만,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어려움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시행하는 상담 기법 같은 것이 스스로 한계가 있다고 느꼈던 것인가요?

허: 네. 저의 상담능력의 한계도 있겠지만, 누가 그 사람의 행복을 끝까지 담보할 수 있겠어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항상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 이것이 정말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편: 그 방법론 자체가 가진 한계에 부딪혔다는 말이죠?

허: 네. 지금 이 사람이 웃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도움이 됐다고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은 항상 떠나지 않았죠. 저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뭔가 강력한 치료세션을 하다보면 굉장히 정화되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내가 달라졌어! 라고 생각하고 이런 경험들에 도취되는 경험이 있죠.

편: 본인이 치료를 직접 받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허: 상담이라는 영역이 재밌는 것이 치료사들도 그런 경험을 하도록 해요. 왜냐면 내가 치료받거나 그런 경험이 있어야 그런 경험을 토대도 도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거나 그러죠

편: 상담사 훈련 자체도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허: 네 상담사로서 수련해나가는 과정이 그렇죠. 끊임없이 자기 내면을 탐구하고 왜곡된 측면들을 교정하는 작업을 해야 해요.

편: 가족세우기 워크숍을 포함해서 다른 세션이나 테라피들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나요?

허: 가족세우기 뿐만이 아니라 상담 전반이 그렇게 진행됩니다. 상담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그런 학문이고 상담사로서 수련해가는 과정 전반이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편: 상담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상담을 하는 상담사까지도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고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 재밌는 시스템이네요.

허: 네 재밌다는 것은 저의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사실 본인의 고통같은 스스로의 문제가 단초가 되어서 상담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내 문제에 별로 주의가 가지 않는 사람들은 상담에 큰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내가 힘드니까 이런 것들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편: 그래서 상담사 생활을 하시면서 구르지예프나 오쇼 등 이런 분들의 일관성 있는 삶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본인도 깨어남에 대한 경험을 하고 싶단 열망이 생겼다는 거죠?

허: 네

편: 상담사 생활하시면서 보셨던 오쇼나 구르지예프와 같은 영성관련 책을 읽으면서, 그런 종류의 책들과 깨어있기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어떤 유사점을 느끼셨나요?

허: 깨어있기 책의 부제가 있잖아요.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요.
그런 말이 내가 다른 곳에서 관심을 가졌던 아주 근본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을 찾게 되었고 또 책을 읽다 보면 앞부분에 월인 선생님의 개인적인 체험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어 ? 최근에 내가 본 책에서의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내용들을 본 것 같아. 소위 깨어났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뭔가 분명히 공통점이 있겠구나 했지요. 다만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과학적이고 그리고 체험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해봐라 하는 직접적인 가르침을 주는 부분이 되게 다른 것 같았어요. 그러나 책을 보고 연습하는 건 정말 한계가 크더라고요.

편: 연습은 언제쯤 하셨나요?

허: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정도 된 거 같아요. 책을 읽고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깨어있기 강좌에 처음 참여했었습니다.

편: 그럼 처음 깨어있기 책을 사서 읽기 시작한 후부터 6개월 후부터 지난 다음에 깨어있기 기초를 수강하셨다는 건가요?

허: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 기간이 된 것 같아요.

편: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스스로 연습을 하신 건가요?

허: 예. 관심이 많았어요. 삼분열이나 그런 내용들도 하다 보면 어? 이게 나를 보고 있는 건데 또 나를 보고 있네? 이런 반복되는 순환이 끝나지 않으니까 이런 질문들도 생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월인 선생님께 교육가서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편: 깨어있기 강좌 기초 심화 둘 다 수강하셨나요?

허: 네

편: 그럼 깨어있기 강좌를 수강하면서 본인이 특별히 경험하셨던 통찰이나 체험이 있으셨나요?

허: 기초에서는 주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아요. 주의가 가는 곳이 내가 현실이라고 느끼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것이 빠지게 되면 다른 영역이 열리게 된다. 감지, 감각 이런 차원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저한테는 그런 것들이 새로운 공부였고요,
심화과정에서 통찰이 컸던 것 같아요. 수강생이 저 혼자였거든요. 백일학교에 있었던 성지님 하고 또 한 분 계셨는데 그분 외에는 수강생이 저 혼자여서. 월인선생님 말씀으로는 마지막 코스까지 다한 것은 거의 처음 하신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된 코스를 항상 끝까지 한 적이 없으셨대요. 아무래도 제가 혼자 있다 보니까 그냥 계속 나가다 보니까 끝까지 다 한 거죠(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대승기신론(29)

월인

불각(不覺)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3가지 상(相)이 있는데 과거로부터 내려온 카르마인 업상(業相), 현재의 상인 현상(現相), 생각이 구르고 굴러서 추측과 계획으로 이어지는 전상(轉相)이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 상이 모두 소멸되어 불각이 멈추고 본각이 살아나는 그 자리가 바로 본질적인 자성청정심(自性淸淨心)이고 불생불멸(不生不滅)의 자리이므로 불각이 본각과 다르지 않다고 대승기신론은 말하는 것입니다. 본각의 마음이 어떤 상(相) 즉 '모습' 을 띠고 있기 때문에 불각이라 하는 것일 뿐, 그 모양만 사라지면 마음은 그냥 본질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지금 마음에 일어나는 그 느낌의 파도만 가라앉으면 그것이 마음의 본질입니다. 그 마음의 상(相)은 외부의 감각적인 자극이나 과거의 수많은 마음의 흔적들에 의해 늘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그 나타났다 사라지는 마음을 모두 없애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허상이고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임을 통찰하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대승기신론은 각과 불각 두 가지를 포용하여 상이 없으면 각(覺)이고 상이 있으면 불각(不覺)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상(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이란 바로 우리가 감지라 이름붙인 모든 것들입니다. 마음에 의해 '잡히는 무엇' 이지요. 그 상은 마음이 '움직여 일어나는 것' 이고, 그 움직임이 그치면 그것이 바로 본질인 것입니다. 따라서 움직여도 본질은 어떻게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상(相)만 없으면 각(覺)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마음의 상은 무명이라고 했습니다(一切心識之相皆是無明). 상(相)이라는 것은 나타났다 사라지는 생멸이 있는 물결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생멸이 없습니다. 아무리 물결이 일어났다 사라져도 바다는 늘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물결은 바닷물의 다른 모습이므로 바다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생멸심 역시 본질이며, 마음의 본질 또한 생멸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생겨났다 사라지는 마음의 상은 생멸이 있는데, 그 상이라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기에 마음의 본질 역시 생멸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면밀히 말하면 생멸이 있다기보다는 '생멸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는 것입니다. 생멸이 있다고 하면 "생멸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으니 '생멸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면 생멸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잘 봐야 합니다. '생멸이 있다' 라고 긍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마음이 거기에 묶여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워크숍 진행 중에 "감지는 이런 것입니까?" 하고 물어볼 때 "감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아~ 감지는 이거구나." 하고 결론을 내고 탐구를 멈추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머물게 하고 멈추게 만드는 것이 긍정적인 대답의 커다란 함정입니다. 부정어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기에 멈출 이유가 없어져 마음을 그것에 뿌리박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물결에 생멸(生滅)이 있으니 바다에 생멸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바다에 생멸이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태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바다는 생멸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생멸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깊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일체의 심식(心識)의 상이 무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명(無明)은 본질이 잊혀졌다는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이미지뿐만 아니라 마음에 의해 잡히는 모든 느낌은 상(相)인데, 이 상(相)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독자적인 존재가 아니고, 그렇기에 사실 존재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벽난로의 장작에 불을 붙일 때 장작을 하나만 넣으면 불이 붙지 않습니다. 꼭 두 개 이상을 놓아야 불이 붙어 오래가게 됩니다. 장작 한 개비는 아무리 세게 타도 화력이 일정 한계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화력 두 개를 가져야만 서로의 화력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서 꺼지지 않고 오래가게 만들기 때문에 두 개를 붙여놔야 불이 계속 유지됩니다. 마찬가지로 나와 대상도 나눠져 둘이 되어야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어디서 어디로 흘러갈 데가 없고 따라서 의식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모든 마음의 상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니요, 현상으로 나타나 있으니 없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는 것이 바로 지정상(智淨相)이고 그것을 보지 못하면 무명(無明)입니다. 모든 상이라는 것 자체가 무명인데, 그 상이 곧 본질이 드러난 모습이기 때문에 결코 본각을 떠나 있지는 않습니다. 파도가 바다 아닌 것은 아니듯이 말이죠.

유식학(唯識學)에서는 불각을 없앤다는 의미에서 불각을 중요시하고, 중관파(中觀派)에서는 각을 각성하는 것을 더 중요시합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왜 각과 불각이 둘 다 중요하다고 했을까요? 중관파는 부처와 중생은 다르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승기신론에서는 각은 각성이고, 불각은 아직 세 가지 상을 없애지 못한 상태의 각으로 봅니다. 그래서 각성한 사람이 자기만 각성하고 끝나면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니, 스스로를 이롭게 하고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것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대승기신론은 말합니다.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上求菩提),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시키고 진리를 전파하는 것(下化衆生)이 자리이타(自利利他)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대승기신론이 각과 불각을 화합해서 모두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며 이것이 소승과 다른 점입니다. 소승은 자기만 각성하면 끝인 반면 대승은 자기 각성과 진리를 중생에게 전달하는 작업을 동시에 해나갑니다.

지금 하늘을 떠올려보세요. 하늘의 느낌은 땅의 느낌과 다르죠? 하늘의 느낌은 땅의 느낌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겠습니까? 검은색을 떠올리면 그 검은색은 흰색에 의존하고, 옳다는 생각은 그르다는 생각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르다' 가 없는 곳에 '옳다'가 어디 있으며, '깨닫지 못했다' 가 없는 곳에 '깨달았다' 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상(相)의 의미입니다. "나는 깨달았다" 고 생각한다면 깨닫지 못한 상(相)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함이라는 게 없다면 어떻게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또한 이것과 저것의 분별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깨달음은 분별이 없어지는 것인데 "깨달았다" 고 믿는 것은 다시 분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장난 같지만 깊은 의미입니다. "나는 뭔가를 경험했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지 않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경험과 경험하지 않음을 나눠놓은 마음의 분별 속에 내 중심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분별에 빠져있는 것이므로 진정한 경험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경험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음을 그 말을 통해서 실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경험이 안 된 사람은 "그럼 어쩌란 말이야?"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不思議業相者, 以依智淨能作一切勝妙境界, 所謂無量功德之相常無斷絕, 隨衆生根自然相應, 種種而現, 得利益故.
불사의업상자, 이의지정능작일체승묘경계, 소위무량공덕지상상무단절, 수중생근자연상응, 종종이현, 득리익고.

불사의업상이란 것은 지혜가 맑아짐에 의하여 모든 뛰어난 경계를 짓는 것이니 이른바 무량한 공덕의 상이 항상 끊어짐이 없어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 자연히 상응하여 여러 가지로 나타나서 이익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

모든 마음의 상(相)을 떠나면 드디어 본질적인 각성인 본각(本覺)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대승에서 말하는 자리이타(自利利他)중의 자리(自利)입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상구보리(上求菩提)와 중생을 교화시키는 하화중생(下化衆生)이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의미이며 대승은 두 가지 모두를 중요시한다고 앞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할 불사의업상(不思議業相)은 하화중생, 즉 이타와 관련이 깊습니다. 불사의(不思議)는 마음으로는 절대로 생각해 낼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다는 뜻이고 업(業)은 경험을 통해 쌓인 마음의 흔적들을 말하니, 불사의업상이란 불가사의한 업의 무한한 용도를 말하는 것으로 불사의업용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대승기신론은 결코 자리(自利)에 대해서만 논하지 않습니다. 쌓여있는 카르마인 업을 무시하지 않고 없애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불사의업상이라는 말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마음에 쌓여있는 감정, 생각, 느낌들이 모두 업인데 이것들을 무조건 처치하고 소멸시켜야 할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불가사의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자기 해탈 이후에 행해야 하는 이타(利他) 즉, 하화중생(下化衆生)입니다.

맑은 지혜에 의존하여 불가사의한 자기 안의 업(業)들을 사용해서 일체의 탁월하고 신묘한 경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불교나 유사한 종교에서 말하는 경계는 대부분 마음의 장애나 문제를 일으키는 분별을 일컫는데, 여기서는 뛰어나고 신묘한 경계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경계' 라는 것을 분별의 장애나 마음이 걸려 넘어지는 그런 문제거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묘하고 놀랍게 사용할만한 분별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섬세해지면 극도로 치밀해진 경계를 만들어냄으로써 세밀한 분별을 잘해낼 수 있음을 말합니다. 분별심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분별을 잘 '사용하는 것' 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분별은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고 위험한 함정이기도 합니다.

처음 자리(自利)의 과정에서는 분별이란 것이 해결하고 뛰어넘어야 할 함정입니다. 그러나 자기 문제가 해결되거나 아니면 아직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은 미진한 상태로 자리와 이타를 함께 해가는 과정에서는, 분별심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신중히 하여 잘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쌓이는 감지로 인해 생겨나는 분별심에 끌려다니거나 묶이지 않고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능작일체승묘경계(能作一切勝妙境界)인데, 이렇게 하면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공덕의 상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무한한 공덕' 이라고 하지 않고 '무한한 공덕의 상(相)' 이라고 표현했지요? '무한한 공덕' 이라고 하면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공덕을 짓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상(相)은 다른 것에 의존하는 것이니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어서 '내가 했다' 라는 마음이 일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상(相)'자를 자꾸 붙이는 것입니다. 양무제가 달마대사에게 "스님, 제가 절을 많이 짓고 스님들께 보시도 많이 했는데 제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으니 달마대사가

"무(無)"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오히려 당신 마음속에 공덕을 쌓았다는 업만 생겼다는 뜻입니다. 양무제는 공덕을 쌓았다고 생각하지만 달마가 보기에는 공덕을 쌓았다는 상(相)만 생긴 것이지요.
불가사의한 업을 사용해서 맑은 지혜에 의존해 일체의 탁월하고 신묘한 경계를 만들어 무량한 공덕의 상을 단절없이 쌓는다는 것은 바로 이타행(利他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타행(利他行)은 무량한 공덕의 상(相)입니다. 자기가 무량한 공덕을 행하면서 남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와주는 상(相)이 있을 뿐인 거예요. 그 상(相)이라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기에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나서 "내가 그 사람을 도왔어." 라고 말하는 것은 상(相)에 빠진 것이고, 이는 상(相)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생근(衆生根)은 중생의 타고난 근기를 말하는데, 흔히들 상근기(上根機), 중근기(中根機), 하근기(下根機)라고 나누어 표현합니다. 상근기는 진리의 한 말씀을 들으면 번뜩 깨어나거나 그것을 향해 매진하는 사람을 말하고, 중근기는 진리를 듣고서 애써 노력하는 사람을 말하며, 하근기는 진리를 들어도 "이게 뭐야." 라며 하찮게 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근기가 발로 차지 않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리(自利)를 이룬 사람은 쌓인 업을 사용해서 공덕을 펼쳐내는데 그 공덕이 끊임없을 뿐만 아니라 중생의 다양한 근기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상응하여 다양한 종류의 이익을 얻게 해주기에 무량한 공덕의 상(相)이 쌓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신론 소에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뽑아 보았습니다.
자신에의 이로움을 얻었다는 것은 자기 문제를 해결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질문은 "자신의 문제를 먼저 해결한 이후에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 고 말했으면서 이타(利他)에는 시작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느냐 묻는 내용입니다. 자기 문제가 해결 되지 않은 사람은 타인을 도와줄 수 없는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시기가 있는 것인데 왜 무시(無始)라고 하였는지 묻는 것이지요. 소응(所應)은 응하는 대상 즉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三世)를 말하며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개체를 뜻하고, 능응(能應)은 능동적인 주체인 여래(如來)를 뜻합니다.

여기서 지금 지혜의 깨끗함과 무량한 여래의 일념(一念)이 행하는 업의 용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깨끗해진다는 말은 수염본각(隨染本覺)이 깨끗해진다는 뜻입니다.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 먼저 본각(本覺)과 시각(始覺)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흔히들 만물에는 불성(佛性)이 있다고 합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불성(佛性), 본질적인 지혜와

〈疏〉
問. 始得自利已. 方起利他業. 云何利他設無始耶. 解云. 如來一念, 遍應三世. 所應無始故, 能應則無始. 猶如一念圓智, 遍達無邊三世之境, 境無邊故, 智亦無邊, 無邊之智所現之相, 故得無始亦能無終. 此非心識思量所測. 是故名爲不思議業相也.

문. 시득자리이. 방기리타업. 운하리타설무시야. 해운. 여래일념, 편응삼세. 소응무시고, 능응칙무시. 유여일념원지, 편달무변삼세지경, 경무변고, 지역무변, 무변지지소현지상, 고득무시역능무종. 차비심식사량소측. 시고명위불사의업상야.

묻기를, "비로소 자신에의 이로움을 얻고 나서야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면서, 어찌하여 다른 이를 이롭게 하는 것을 無始(시작이 없다)라고 하였는가?"
설명하기를 "여래는 일념에 삼세를 두루 응하니 소응(응하는 대상, 삼세)에 시초가 없기에 능응(응하는 주체, 여래)도 시초가 없다. 이는 마치 일념의 원만한 지혜가 한없는 삼세의 경계에 두루 이르는 것과 같으니, 경계가 끝이 없기 때문에 지혜도 한이 없고, 한없는 지혜가 나타내는 상이기 때문에 시작도 없게 되며 끝도 없게 되니, 이것은 심식의 사량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불사의업'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깨끗한 근본을 본각(本覺)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본각이 현상계에 드러나는 것은, 본각이 있기는 한데 무언가에 오염되어 있거나 덮여 있을 때 가능합니다. 물론 오염되어 있거나 덮여있다고 해서 본각이 물들어 있는 건 아니에요. 마치 진흙 속의 연꽃처럼 말이죠. 아무리 더러운 진흙 속에 있어도 연꽃은 늘 이슬 머금은 이파리처럼 깨끗합니다. 본각이라는 불성, 근본의 자리는 전혀 물들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그대로 있지만, 현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의식화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발견한다는 것은 '늘 그대로' 를 발견하는 것일 뿐입니다. 수도하고 닦아서 작았던 본질을 크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는 본질을 발견하는 것이지 결코 만들어 내거나 깨끗이 닦거나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미 각성되어 있고 깨달아 있기에 본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달아 봤자 별거 없을 거고, 깨달을 이유도 없고, 있는 그대로가 이미 완벽한데 뭘 애써 노력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이미 깨달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의식화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별에 의한 의식화까지 이루어진 것을 시각(始覺)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현상세계에 본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드러나면 이미 본각은 분별에 물든 것이 됩니다. 이상이 본각과 시각의 의미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